

[단독]'동방신기' 中 3명, 법원에 SM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(1보)

입력 2009. 7. 31. 21:39 · 수정 2009. 7. 31. 21:51

[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김대오 기자,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]



▲ 그룹 동방신기의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, 최강창민, 유노윤호(좌측부터/노컷뉴스 자료사진)

남성그룹 '동방신기'의 멤버 가운데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 등 3명의 멤버가 법원에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.

이들 3명의 멤버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했다.

동방신기의 다른 두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빠졌다.mrvertigo@cb
s.co.kr ● 동방신기 유노윤호, 생애 첫 드라마 도전 ● '동방신기' 유노윤호, 드라마 '맨땅의 헤딩'
주연 물망 ● 동방신기, 日서 인기 얻은 싱글 국내서도 발매 (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
8.1 / 음악FM93.9 / TV CH 412)< 저작권자 © CBS 노컷뉴스(www.nocutnews.co.kr) 무단전재
및 재배포 금지 >

노컷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